

여수, 일가족 4명 확진...가정내 격리 수칙 위반 의심

광주 안디옥 교회 연관 n차 감염 추정...동선 등 역학 조사 끝나

자녀들, 방학 기간 등교 안해 학교 대한 추가 검사는 실시 않기로

여수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일가족 4명이 확진되면서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에 여수 45번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후에 45번 환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 등 여수 46번에서 48번까지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여수에서는 3일 현재 해외입국자 17명을 포함해 총 48명이 확진됐다.

여수 45번(전남 754번)부터 여수 48번(전남 759번)까지 4명의 확진자는 가족으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는

완료됐다.

가족 중 아버지인 여수 45번(전남 754번) 확진자는 지난 1월 21일 광주 1499번 확진자와 여수의 한 찻집에서 동선이 겹치면서 단순검사자로 분류됐다.

이후 24일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31일 콧물, 후각 소실 등 증상이 나타나 2월 1일 보건소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후 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수 46번(전남 757번) 확진자는 여수 45번 확진자의 배우자이고 여수 47번(전남 758번), 여수 48번(전남

759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이다.

여수 46번 확진자는 배우자의 확진 판정에 따라 2일 보건소선별진료소 검사 후 오후 6시께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1월 25일 확진된 여수 43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7일까지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확진일까지 사전 증상은 없었다.

여수 43번 환자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광주 1499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 47번과 여수 48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인 여수 46번 확진자가 지난 26일부터 자녀들의 식사 및 일상생활을 돌보는 등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정 내에서 가족 간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여수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4명 모두 순천의료원에 입원시킨 뒤 추가 접촉자 및 이동 동선 추적 등 정밀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여수 45번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 1곳과 확진자의 자녀인 여수 47번, 여수 48번이 방문한 3개 시설은 폐쇄 조치했다.

여수 45번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의 접촉자 1명, 자녀가 방문한 시설 29명에 대한 검체검사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녀들은 방학 기간 등교는 하지 않



여수시보건소 옆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설 연휴 기간까지 4회차 연장되고 있다"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로 지난 1년여간 축적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은 올해 1분기에 최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해 개인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친구들이 어서놀자' 절기상 임춘인 3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김지호 양, 김윤준 군 가족이 '친구들이 어서놀자'라 쓰고인 글귀를 붙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전세계 75개국서 확인...감시국 확대

당국 "75개국서 변이 바이러스 확인...유병률도 올라"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에서 유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감염 사례가 전세계 75개국으로 확산됐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추세로 확산될 경우 3월께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은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검사분석1팀장은 3일 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변이 발생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75개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인되고 있고, 그 안에서 유병률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

가와 유병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시 국가를 업데이트 중"이라며 "전수 감시 국가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시리아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는 전장 유전체 분석 기술이 떨어져 있고 발표도 없어 유이한 국가로 선정하고 있다"며 "그 외에 미국, 프랑스, 필리핀, 중국 등도 감시 건수를 늘려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모두 무죄

"전체 신도명단 요구...위계 고의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체적인 직무 집행 방해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신천지에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운)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52)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상태로 기소됐지만,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관계자 8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질병관리청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역할 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위계의 고의도 없으며 관련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대오지파장 A씨 등 이들은 공모해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에서 제외대상으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으로 밝혀지자 대구 남구보건소,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19일 대구교회에게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체 교인명단'의 제출을 요구했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 조사가 자체라기보다는 역학 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해 7월13일 검찰의 공소장 접수로 재판은 시작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해 무죄 선고받자 지난 1월15일 진행될 예정이던 선고 공판이 2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1001명 예배자 외에도 확진자들이 속출하던 시기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외했다", "인원 선별했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가 확인됐고 이는 선별된 인원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 교회 관계자 홍보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교회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선고 재판이 끝난 후 A씨 등 신천지 관계자들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